

# 정릉4동 사암련

# 27년간 자비행

◇정릉4동 사암련은 지난 22일 민덕사에서 설날맞이 불우 이웃돕기 행사를 개최했다.

## 독거노인 39명에 아쿠르트 배달 환경미화원 내의 선물 '겨울나기' 학생들 장학금·불우가정 쌀 전달

"할머니!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아이고 또 왔구먼, 잘 지내고 있어."  
매일 아침이면 찾아오는 아쿠르트 배달기사 이재미(89세, 정릉2동) 할머니의 이 첫저것을 물으며 관심이 깊다. 김 할머니에게 있어서 하루 중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임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릉4동 40여가정 10여개 사암련자들은 매일 10여만원의 식사일반으로 모아 관내 독거노인 39명에게 매일 식음료를 배달하고 아쿠르트 아줌마를 통해 건강도 체크하며 약값도 보내주는 등 '독거노인 보살피기'에 여념 없다.  
이같이 잔잔하면서도 큰 선행은 정릉4동 사암련협의회(회장 김동남, 송암사주지)가 27년여 동안 펼쳐온 독거노인돕기, 부처님오신날 불우중·고등학생 20여명에게 장학금주

기, 환경미화원들에게 내의 및 공방 대접하기, 4개노인정 돌보기, 불우가정에 쌀전달하기 등 다양하여 지역에서 칭송이 자자하다.  
지난 1월 22일에는 민덕사(주지 무영)에서 설날맞이 불우이웃돕기 행사가 열렸다. 환경미화원 27명에게 내의 한 벌과 불우가정 20가구, 관내 4개 노인정 대표 등에게 쌀 24가마를 전달하고 점심공양도 극진히 대접했다. 이 자리에서 회장 김동남은 "이웃을 돕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보은이다"며 "공식적인

불우학생을 위한 장학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우순님이 '명령구리'라는 민요중의 노래를 통해 불교의 늙고 병들, 생사의 이치를 들려주자 모두들 박수를 치며 즐거워 했다. 스님들은 법문보다 추운 곳에서 수고하는 미화원들에게는 '술먹고 속쓰린데는 '유근피'를 먹어라'는 것과 노인들이 많은 만큼 '허리야들해 감자를 갈아 양공을 내어 밀가루 생강을 넣어 이른 부위에 끓이면 건강하다'는 민간요법을 자상하게 들려주어 어떤 자리보



다도 화기에 애호하다. 정릉4동 정동화동장은 "스님들을 뵈 때마다 환희심이 절로 생겨 행사 때마다 전체 동민이 느끼는 고마움 전달하기 위해 자리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 불거리 설날특집 들들거리

은가쪽이 함께 하는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맞아 불교 TV와 불교방송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불교TV** 생방송 '날마다 좋은날' (7일 오전 10시 20분)은 새해인사와 함께 희망찬 소식과 따뜻한 사연을 전한다. 개그맨 조규찬씨가 지리산 천왕봉의 예지마을을 찾아 그곳에서 생신하는 대나무 복조리를 소개하고, 명절을 맞아 고국에 더욱 그리기만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상도 소개해 그들과 함께 따뜻한 설날을 함께 나누어 줄 방법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우리의 전통문화와 떡 제조방법도 알려줄 예정이다.  
반향심 많은 소년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참자리에 눈뜨는 과정을 그린 청소년 성장만화 '창춘열곡' (7일 오후 1시55분)도 방영된다. 불상가게에서 아르바이트로 조각일을 하는 아관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반향적인 성격이 되버린 사춘기 소년. 불교를 접하게 되면서 점점 착한 아이로 변모해가는 아관의 이야기가 재미있는 만화영화로 펼쳐진다.  
웃음 가득한 즐거운 설날아침을 열어 줄 놀이 한마당 '설날특집 게임쇼, 아담박스' (8일 오전 10시)은 특히 눈여겨 볼 만한 프로그램. 텔런트 민욱, 김현기, 강석현, 영화배우 방은희, 개그우먼

김성은, 리포터 조영구, 슈퍼모델 주정은 등 인기 연예인들이 펼치는 게임과 팔도소울을 경연대회 등 재미있는 놀이가 벌어진다. 영화화면속에 숨어있는 설날과 관련된 물건 찾아내기 등 시청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게임도 마련돼 있다.  
관소리 다섯마당중의 하나인 심청가 일부를 전통창을 바탕으로 마당극 형식으로 재구성한 '설날특집 마당극 서울 행파' (8일 오전 11시)도 방송된다. 효심이 지극한 심청이의 성품과 악역인 행파를 대비시켜 권선징악을 해학적으로 표현해 보여준다.  
**BBS** 우주질서와 하나되는 계를 유유자적한 생활로 참다운 자유의 삶이 어떤것인지를 보여주는 선사들의 삶과 일거수 일투족을 이야기식으로 소개, 선사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재미있는 선사이야기' (7~8일 오전 10시5분)가 방송된다.  
또한 국악과 팝, 가요등 풍성한 음악으로 청취자들을 찾아가는 '10시간 생방송'이 7일~9일까지 방송되고, 보도특집 '특별대담 조순시장에게 듣는다' (9일 오전 7시10분)에서는 청취자들이 궁금해하는 올해 시정계획과 조시장의 생활철학, 가족이야기 등을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은>



◇전주 정혜사는 지난 1월 22일 전북불교대학 학사신축 기공식을 거행했다.

## 스님이 재가교육도량 마련

### 정혜사 해일주지 앞장... 전북불교대학 학사 기공

재가불자들의 숙원사업이던 교육도량 마련에 스님이 앞장서고 나서 화제다.  
전주 정혜사(주지 해일·보문종 총무원장)는 지난 1월 22일 효자동에서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불교대학 학사신축 기공식을 봉행했다.  
해일스님은 "재가불자 교육을 위해 3.4층을 전북불교대학 학사로 제공한다"며 "이번 불사는 은사이셨던 명주스님의 교육원력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 1층 지상4층(대지 2백평 총 건평 6백평) 규모의 불교대학 학관은 연내 완공되며 3.4층(2백40평)에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전북대 철학과교수) 학사가 들어선다. 이 학관에는 전북불교대학의 법당과 강의실 도서실이 들어설 계획이다.  
한편 전북불교대학은 98년 개교 10주년을 맞아 문교부에 불교단설 대학 인가와 불교전문대학원설립을 추진해 미약한 호남불교발전을 꾀할 예정이다.

## 중단소식

### 3개과 신설개교 확정 동방대 설립재단 이사회

태고종 태고학원(이사장 인국 스님)은 지난 1월 28일 총무원 3층회의실에서 11명의 이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 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불교학과 단과학과로 출범키로한 동방불교대학을 불교미술과 불교음악과 3개과로 신설로 변경하는 개교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했다.  
이사회에서는 98년 3월 개교를 위해 오는 7월까지 학교건물을 신축키로 하고 이사추임금과 재정확보방안을 논의했다.

## "北 핵폐기물 안된다"

### 중단진흥회 성명

대한불교중단진흥회(회장 일공)는 지난 1월 28일 대안 핵폐기물 북한수입 반대 의사를 천명하고 핵폐기물 매입협정서 폐기를 촉구했다. 진흥회는 "2천만 불자가 앞장서 핵폐기물 북한 매입을 반대하여 통일조국의 유산을 후손에게 남겨주자"고 밝혔다.

## 불교방송 '경리사고'

### 115억 규모...대책 부실

불교방송은 2월 1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경리부 김선도차장과 김현안씨가 공고한 115억규모의 대형 경리사고에 대한 조속한 수습대책과 앞으로의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월 30일 현재)

불교방송은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1월 28일 사건수습대책위원회(위원장 영배스님 심의실장)를 구성하고 자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30일에는 사건수습대책위원 손경현씨(기술부)를 김차장의 피신처인 베트남으로 급파해 사건 수습에 나섰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김선도 차장과 김현안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 약속을 2배 액면가 73억8천만원 상당을 현금할인해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회계은행 마포남지점에서 교부받은 백지약속어음을 위조해 4억9천5백만원짜리 가짜 약속어음을 발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4억7천만원으로 할인받는 등 14차

## 불교방송 노조위원장 선상신기자 선출

### 불교방송 노동조합이 지난 1월 29일 불교방송 3층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새 집행부 위원장에 선상신기자를 선출했다.

전체노조원 61명중 46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편성국 부위원장에 박상필PD, 기술국 부위원장에 이상숙씨, 관리국 부위원장에 김병남씨를 각각 선출했다. 또 노조사무국장은 박원식기자(보도부), 회계감사는 백낙천(기술부), 이영진차장(편성국)이 맡았으며 김학주PD가 민주총신선취위원회 간사를 김성준PD가 여성위원회 간사를 각각 맡았다.

## 단양 광범사, 무의탁 교포노인 위문

### 단양 광범사(주지 갈웅)는 지난 1월 21일 사월린 영주귀국 무의탁 교포노인 42명이 머물고 있는 경북 고령 대창양로원을 방문하여 위문하고 합창단의 찬불가공연을 펼쳤다.

이날 위문은 광범사 합창단원들이 1월7일과 13일 구인사에서 생강차와 커피편지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했으며 노인 42명 모두에게 용돈을 전달하고 양로원에도 연료비를 전달했으며 준비해간 떡과 과일을 공양하며 찬불가공연을 펼쳐 즐거움을 선사했다.  
주지 갈웅스님은 설법을 통해 "지금은 비록 어렵고 고달픈게 살아야지만 남을 원망하지 말고 부처님의 자비스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행복하다"고 말했다.

## 프랑스인 이다도시 초발심

### bn '김병조의 이야기쇼' 2월 10일 방송

한국남자에게 시집과 생소함 이국생활에서도 소탈하고 거침없는 모습으로 또 TV 인기프로그램을 통해 친근해진 프랑스인 이다도시가 불교TV '김병조의 이야기쇼'에 출연 대대로 불교집안인 남편에게 시집 와서 시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며 불교에 관심을 갖게된 초발심의 과정을 이야기한다. 방송은 2월 10일 낮 12시10분.



◇특목 투는 특유의 억양으로 이다도시는 불교와의 인연에 대해 솔직담백하게 이야기 했다.

## 송광사 국사전소장 13국사 영

정(보물 1043호)중 13점이 도난당한지 1월 27일로 꼭 2년이 됐다. 도난 직후에는 정부와 중단에서 수사본부와 송광사성보도 단사건대책위를 구성하고 교역의 포상금까지 걸었으나 두달도 못가 흐지부지돼 회수의지조차 불명확해진 상태다.

성보가 아직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에 있을 것이라는 담당기관의 추론에 그나마 위안을 삼아야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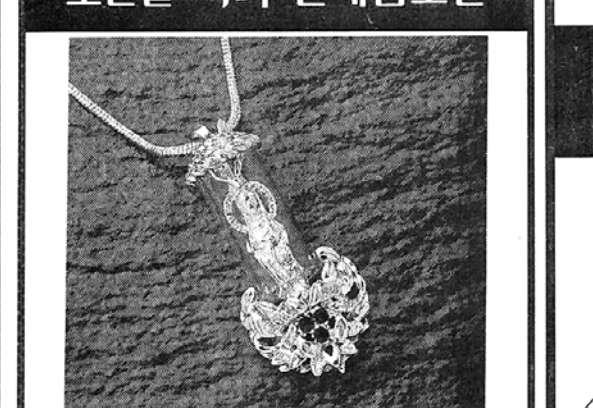
계 보존 관리할 성보전시관 건립을 국가지원으로 추진하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후천을 수 있다.  
성보는 단순히 오래된 문화재이기보다 불자들에게 신앙의 대상이다. 보조선업을 비롯해 잃어버린 고려국사전장 13본은 우리가 늘 우려라 사표로 삼아야 할 불명예진 상태다.

조사남들이다. 그분들을 제자리인 국사전에 다시 모셔야 한다. 그래서 송광사도 성보총괄로서의 위임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교계의 오랜 숙원이던 성보

## 13국사님 어디 계신가

다. 성보보존위는 성보문화재의 발굴, 조사, 연구 등 성보에 대한 전반적인 중요 관리업무를 관장할 예정이다. 올해가 '문화유산의 해'인 만큼 대표적 성보문화재인 13국사 영정이 올해 다시 불교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중단과 성보보존위, 송광사 그리고 관계기관에서 다시 적극 나섰다. 다시 한번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자각을 일깨우는 방편으로 TV나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 호신불 백의 관세음보살



### 무명을 밝히는 관세음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을 수정관으로 깎았고 있으며 하단에 연꽃받침이 있고 연꽃받침 가운데에는 불무사파이어 보석3개가 있습니다. 또한 영구보존이 가능한 99% 순 은으로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정관은 투명하여 모든 불자의 청정한 마음 '진여심(眞如心)'을 상징하며, 보석3개는 삼보에 귀의함을 뜻합니다.

목에 진 관세음 보살님을 나와 이웃의 佛心을 헌중 돈독히 할 것입니다.

제조원 예광기획(의정등록 출원)  
관세음보살 목걸이  
연락처 (02)752-3617 · 779-2979 (09-17시까지 통화가능)  
호출 : 012-303-9207

## 극락 왕생의 길

## 佛 교식 장례를 물자들 손으로

불교식 장례를 대행하여 포교에 기여하고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드는 장례를 저렴하고 정중하게 진행하여 드립니다.

- ▶ 재가 불자들의 불교식 장례대행
- ▶ 수의 전문 제작, 영결식 기획대행
- ▶ 스님 장례 전문, 스님 수의 제작
- ▶ 여자 신도 및 비구니 스님 장례시 여자 보살님이 염을 해 드립니다.
- ▶ 장지 앞선 및 이장 업무
- ▶ 천막, 파출부, 음식알선
- ▶ 무의탁 노인 장례 봉사 전문

## 전국 불교 장의 연합회

광주 불교 능인회 : 062-226-5161-4  
대구 지장불교상조(주) : 053-654-0055  
부산 관음손마을·장의부 : 051-818-6511-2  
서울 대한 불교연화회 : 02-732-9618-9

## 二載佛敎에서만 西藏香을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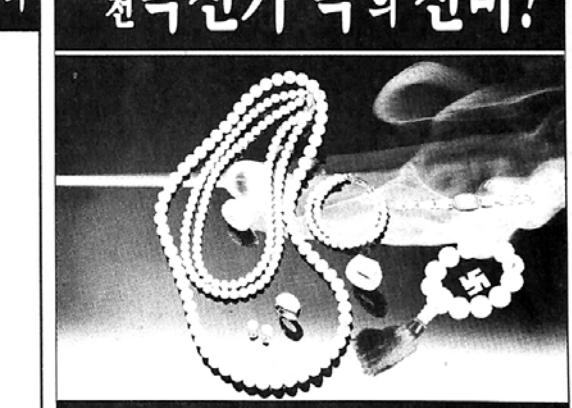
## 히말라야 천연향 탄생!

저희 이재불교에서 순수 천연향인 설산수도향과 영취삼매향을 만들었습니다. 화학방향제인 무스크라를 사용한 일본제품보다 더욱 질 좋은 제품입니다. 어찌하여 신도님들은 삼보에 공양할 향을 화학제품으로 선택하십니까? 일본에서 저희제품과 같은 순수 천연의 저장향 가격을 알아보셨습니까? 2천만 불신도 여러분! 삼보에 계신 스님들은 항상 화학향으로 건강을 해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들은 무스크라를 화학 방향제를 사용한 일본제품의 배적운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나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순수 천연향을 선택 하십시오!

※ 단기간에 열렬히 성원해주신 점포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이 취급을 원하시는 점포는 본사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저희는 중간상인을 쓰지 않습니다.

二載實業 佛敎事業部 ☎ (02)467-6044-5 FAX (02)467-6045

## 천원옥산가 옥의 신비!



##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뇌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 스트레너나 피로에 쌓인 직장인, 수험생에게...  
★ 4.50대 주부의 화병, 불안, 신경질, 노화방지에...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 장타력, 집중력, 판단력, 골프머리까지 지켜드립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결과  
중국대 난징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6.9%, 심장질환자 92.9%, 우울증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소화염 77.8%, 관절염 60%의 증상을 치료 효과 기록했다. (93.2.17 서울신문)  
\*의약용은 아니나  
세계 유일의 진옥(眞玉)제품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합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브랜딩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毛山家 777-0105 (우편번호) 是空 舍學